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7년 4월 12일 · 제 402호
항만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김은수 실장,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친환경 극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시대 본격적인 시작
2. 유럽의 자동차 처리 항만, 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 순항
3. ADB, 조지아의 비투미 교통·물류에 1억1,400만 달러 투자
4. 베트남,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콜드체인 활성화

| 물류시장동향 |

1. 블라디보스토크~나진~훈춘 간 여객선 운항
2. Damco, 디지털 화물 포워딩 스타트업인 Twill 설립

| 공지사항 |

1. 글로벌 물류/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계획(안)
2. 4차 산업혁명과 물류의 융·복합 세미나 개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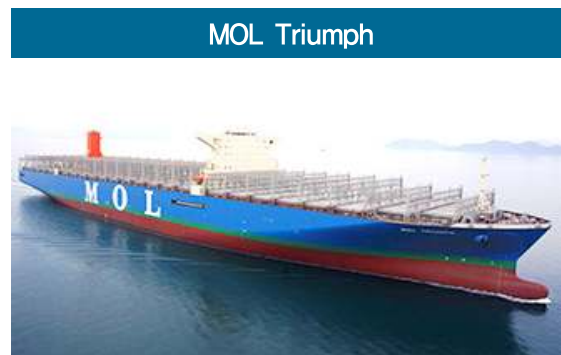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친환경 극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시대 본격적인 시작

- 최근, 일본 Mitsui O.S.K. Lines(MOL)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,150TEU급 컨테이너 선박(MOL Triumph)을 인도받음
 - 관계자에 따르면 본선은 세계 최초의 2만TEU급 이상 극초대형 컨테이너선이자 LNG 동력선으로 환경 규제에 대비한 선박이라고 밝힘
 - MOL Triumph는 현재 기존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하지만, LNG벙커링 시스템이 본격화 되면 LNG 연료로 전환 가능하게 설계 되었다고 밝힘
 - 삼성중공업과 MOL은 설계단계에서 선박운항, 성능평가, 새로운 규제준수 및 위험성 평가(위험성 평가 연구 등(HAZID))등을 합동 연구로 진행하여 새로운 선박 디자인을 개발함
 - 새로운 디자인의 특징은 최적의 LNG 연료 탱크 배치 및 초대형 컨테이너 선의 설계를 위한 최적의 개조 계획,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최대 엔진 출력을 보장하는 적합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 및 LNG 또는 중유의 사용을 허용하는 연료 엔진 시스템이라고 밝힘
 - 또한, 저 마찰 수중 페인트, 고효율 프로펠러 및 방향타, 선체 바디(Body)의 스트림 핀과 같은 Savor Stator 등 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이 장착 되어 있음

MOL Triumph 제원	
전장	400m
폭	58.8m
흘수	16.0m
최대적재량	20,150TEU
재화중량톤수	197,500MT
평균속도	21knot

자료 : sin.clarksons.net



자료 : www.mol.co.jp

- 2017년 4월, 아시아 유럽 항로에서 첫 운항 예정
 - MOL Triumph는 오는 4월 중국 신강을 출발해 대련, 청도, 상해, Ningbo, 홍콩, 안티안, 싱가포르로 기항 예정
 - 이후, 수에즈 운하를 거쳐 모로코 Tangier, 영국 Southampton, 독일 Hamburg, 네덜란드 Rotterdam, 프랑스 Le Havre에 기항하고
 - 모로코 Tangier, 아랍에미리트 Jebel Ali를 거쳐 귀항 예정

자료 : worldmaritimenews.com, 2017.4.6.

박주동 전문연구원
051-797-4660, jdpark@kmi.re.kr



유럽의 자동차 처리 항만, 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 순항

- 지난해 유럽 및 미국을 강타한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자동차 처리 항만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망됨
 -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유럽에서 자동차 운송 및 해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무역 조건, 글로벌화, 영국 파운드화 평가절하로 시장 여건이 유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항만의 차량처리 부문은 2016년 수출, 수입 모두에서 성장함
 - 많은 항만 전문가들은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
- 일부 대형 항만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음
 - 유럽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처리하는 벨기에의 Zeebrugge항은 2016년 차량 277만 대를 처리하여 새로운 기록을 수립함
 - 이는 전년 대비 14%이상 물량이 증가한 것임
 - 유럽 남부지역 항만 역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음
 - 스페인의 Valencia항과 슬로베니아의 Koper항은 연간 25% 정도 차량 물량이 증가하였으며, Koper항은 작년 아시아로 수출되는 다임러사의 차량을 처리하기 시작했음
- 반면 북부 유럽의 일부 항만은 여러 차량제조사의 수출물량 감소로 처리 물량이 감소하였음
 - 차량제조사의 거래물량 조정과 환율변동의 여파로 손실이 발생했음
 - 독일의 Bremerhaven과 Emden, 벨기에의 Antwerp, 네덜란드의 Amsterdam과 Vlissingen항은 처리물량이 감소했음
 - 이는 부분적으로 작년 극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며, 중국에서 새 조립 공장의 운영 개시 및 지역 생산량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
- 유럽의 차량처리 항만의 성장은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브렉시트와 프랑스 대선,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음
 - 그러나 유럽의 각 차량처리 항만은 시설투자 확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
 - 이중 LNG연료 차량 운반선(dual-fuel liquefied natural gas PCTC¹⁾)의 추가도입으로 환경규제 부문에서 해결책이 되고 있음
 - 철도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 수단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에 대비하고 있음
 -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완성차의 해상 및 항만 교역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
1) pure car and truck carrier



Humber Port 수입 차량



자료 : automotivelogistics.media

자료 : automotivelogistics.media, 2017.4.4.

박창근 전문연구원
051-797-4781, beinji2@kmi.re.kr



ADB, 조지아의 바투미 교통 · 물류에 1억1,400만 달러 투자

- 아시아개발은행(Asian Development Bank, ADB)이 조지아의 교통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억1,4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함
 - 차관 지원 목적은 조지아의 도로교통 효율성 및 연계성을 높이고, 교통 ·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음
 - 한편, ADB는 2007년 이후 조지아의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 2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음
- ADB는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, AIIB)이 동 프로젝트에 제공한 최대 1억1,400만 달러의 추가 자금도 관리 및 운영 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는 ADB가 처음으로 조지아에서 다른 파트너와 함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며 ADB와 AIIB가 함께 진행하는 3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함
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항구도시인 바투미를 지나가는 14.3km의 새로운 우회도로가 건설 될 예정임
 - 바투미는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동서고속도로²⁾(트빌리시~바투미)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송되고 있는 무역상품들의 중요한 출입지점임
 - ADB 조지아 지부장 Yesim Elhan-Kayalar는 조지아가 코카커스 지역의 교통 · 물류 허브로서 적합하다고 언급하며 ADB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지아의 교통 연결성과 도로망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함
- 새로운 2차선 우회도로는 세나키-포티-사르피(Senaki-Poti-Sarpi) 고속도로에서 시작하여 바투미-아할치헤(Batumi-Akhitsikhe) 고속도로에서 끝남
 - 바투미-아할치헤(Batumi-Akhitsikhe) 고속도로는 동서 고속도로의 일부분임. 새로운 바투미 우회도로 또한 동서 고속도로의 일부로서 포티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한 사르피와 연결되며 나아가 트빌리시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까지 연결 됨
 - 이를 통해 조지아 정부는 조지아를 아시아와 유럽 간 비즈니스 관문으로 만들고자 함
- 또한, 자금조달의 일환으로 약 200km의 국제도로 및 2급도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성과기반의 유지보수 계약이 시행될 예정임
 - 2급도로는 주요 도로나 지역의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함
 - 이 계약은 초기 수리,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긴급보수 등을 포함한 성과기반 요소와 산출결과 등으로 이뤄져 있음

자료 : www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7.4.4.

전우현 연구원
051-797-4615, jwh0321@kmi.re.kr

2) 동서고속도로는 유럽 국제도로망(E60, E70) 가운데 유럽-아시아 회랑의 일부임



베트남,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

- 베트남 내수시장 및 주변국가의 냉장, 냉동식품 수요의 증가로 베트남의 콜드체인 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
 -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은 여전히 8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,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큰 성장이 예상됨
 - 베트남 내 음식점, 마트, 쇼핑몰 등이 증가함에 따라 냉장, 냉동 등 신선식품에 대한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최근 베트남지역 내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의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2020년까지 1,500개의 편의점 및 소규모 점포와 350개의 대형 마트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
-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콜드체인 시장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
 - 베트남의 콜드체인 전문 기업인 ABA Cooltrans의 관계자는 콜드체인 시장의 활성화 요인으로 소비자의 음식 섭취 변화와 식품에 대한 소비 추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
 - 베트남의 소비자들도 과거와 달리 음식 섭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 준수가 콜드체인 물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
- 베트남의 콜드체인 물류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
 - 냉장, 냉동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 및 저장을 위한 시설 부족으로 매년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과일, 채소 생산량의 25~30%가 낭비되고 있음
 - 베트남 내 콜드체인 관련 시설의 용량은 과거 10년 보다 4배 증가하였지만, 대부분의 시설이 내수 소비 보다는 해산물의 수출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내수 시장의 성장에 대비한 콜드체인 시설의 구축이 필요함

자료 : www.theloadstar.co.uk, 2017.4.7.

김동환 연구원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블라디보스토크~나진~훈춘 간 여객선 운항

- 연해주 지방정부는 2017년 초 블라디보스토크-나진-훈춘을 연결하는 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을 발표함
 - 여객선 운항에 따라 연해주 지역의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현재 블라디보스토크는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으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관광지임
 - 2017년 이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2016년에 비해 여객 횟수가 3배 증가하여 총 14회 운항할 예정임
 - 과거 최대 연간 운항 횟수는 총 12번으로 2012년에 기록함

자료 : portnews.ru 2017.3.21.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Damco, 디지털 화물 포워딩 스타트업인 Twill 설립

- 덴마크 물류기업 A.P. Moller-Maersk의 3PL 자회사인 Damco는 디지털 화물 포워딩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Twill을 설립
 - Twill은 선별된 고객에 대한 테스트를 종료하였으며, 4월 10일부터 영국시장을 기점으로 플랫폼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힘
 - Twill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은 즉시 예약, 문서관리 및 화물추적이 가능해짐
 - 동 서비스는 즉각적인 견적산출, 투명성, 통합문서관리, 리스크관리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함
- 초기에는, 중국-영국 간 해상화물관리에 서비스를 시작하여, 향후 몇 달 동안 순차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예정
 - 중국-영국 노선 간 서비스 출시 이후, 아시아-유럽 간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힘
 - Twill의 관계자에 따르면 동 서비스는 과거 몇 년 동안 크게 간과 해왔던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음
 - Twill은 새로운 고객에게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포워딩 서비스로 전환 할 수 있다고 밝힘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7.4.5.

김병주 연구원
051-797-4784, bjkim17@kmi.re.kr



글로벌 물류/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계획(안)

- ◇ 국내 물류/화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, 중앙아시아의 물류/투자환경 정보 및 참석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제공

■ 행사 개요

- 주최·주관: 한국통합물류협회
- 일시·장소: '17. 4. 18(화) 15:00~18:00,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룸209호
- 참 가 자: 국내·외 화주기업 및 무역업체의 해외영업/기획 담당자 등
- 주요내용 : 동남아시아물류/투자환경, 철도를 활용한 중앙아시아진출 전략

■ 세부 일정

설명회	구 분	시간	발표주제	발표자
동남아시아 물류/투자환경 설명회	입 장	1450~1500 (10)	-	사회자
	기조연설	1500~1505 (05)		국토교통부
	발 표	1505~1525 (20)	말레이시아 투자혜택 및 물류동향	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소장
	질의응답	1525~1535 (10)	-	
	발 표	1535~1605(30)	①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유의사항 및 주요 이슈 ② 기업인수합병(M&A)을 통한 물류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	Wong&Partners 로펌 파트너 변호사
	질의응답	1605~1615(10)	-	
	발 표	1615~1635(20)	인도네시아 물류/투자환경 및 통관절차, 보세물류센터	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 소장
	질의응답	1635~1645(10)	-	
철도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	휴식시간	1645~1655(10)	-	
	발 표	1655~1715 (20)	한국 기점 유라시아 해상-철도 복합운송루트 활성화 추진 전략	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
	질의응답	1715~1725 (10)	-	
	발 표	1725~1745(20)	카자흐스탄 물류/투자 환경과 물류인프라 개발계획	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
	질의응답	1745~1755(10)	-	

첨부파일: 참여기관 소개 및 참가신청서



4차 산업혁명과 물류의 융·복합 세미나 개최

- ◇ 국내 대표 물류서비스 기업의 차별화된 물류서비스와 물류산업 4.0 대응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
- ◇ 스마트 물류 신사업 육성(물류·IT 융합)과 첨단 물류기술기반을 통한 신사업 스타트업 육성 등의 미래지향적인 물류산업을 홍보
- ◇ 최신 물류스타트업 기술동향 및 정부의 물류R&D 지원 정책을 홍보

■ 행사 개요

- 주최·주관 : 한국통합물류협회
- 일시·장소 : '17. 4. 19(수) 14:00~15:40, 킨텍스 제2전시장 현장세미나룸
- 참가대상 : 국내·외 화주-물류기업 및 연구기관, 학계 등 담당자
- 주요내용 : 특화물류서비스 / 물류·IT 융합 물류서비스 / 물류 R&D 정책

■ 세부 일정

구분	시 간	발표주제	발표자
안내	13:50 ~ 13:55 (5')		사회자
기조연설	13:55 ~ 14:00 (5')		국토부
국토교통부	14:00 ~ 14:20 (20')	2017년 미래시대를 대비한 국토물류정책	물류정책과 최용현 사무관
질의응답	14:20 ~ 14:25 (5')		
CJ대한통운	14:25 ~ 14:45 (20')	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	정태영 부사장
질의응답	14:45 ~ 14:50 (5')		
고고뱅크 아	14:50 ~ 15:10 (20')	공유경제와 물류의 변화 (HOW THE SHARING ECONOMY IS SUPPORTING THE LOGISTICS LANDSCAPE)	남경현 대표
질의응답	15:10 ~ 15:15 (5')		
메쉬코리아	15:15 ~ 15:35 (20')	고객감동 Last 1 Mile을 창겨라: Smart Logistics Case Study'	유정범 대표이사
질의응답	15:35 ~ 15:40 (5')		

첨부파일: 참가신청서